

교육의 평등성 의미와 한계

이 정 기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I. 시작하는 글

교육의 평등성은 인류가 공통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개념규명과 정립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르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현상이 때로는 교육의 기회평등이라고 평가되는가 하면 때로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확정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실천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의 지향이 평등과 자유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도 모든 제도내지 방법에서 기회균등의 이념이 실천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이 단지 이념에 불과하게 된다면 교육기회의 평등성의 의의는 찾을 수 없게 된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교육학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평등의 이념은 현행 교육체제의 일차적인 원리로서 취학 및 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교육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수업방식을 결정하는 문제, 그들에게 교육자원을 분배하는 문제, 또한 그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문제 등 교육의 전 과정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시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규명은 아직도 극히 초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불분명한 점이 많다. 물론, 평등의 개념은 쉽게 명료화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의 실제적인 면에서 평등을 기하기는 어렵게 된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교육계의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교육이 현대사회와 갖는 중요한 관련성 때문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교육은 개인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을 또한 개인의 행복스러운 생활과 장래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개인생활 및 사회 발전과의 관련성은 교육의 기회평등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한국교육학회 20주년 기념 강연회의 에서의 Brookover 의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강연,¹⁾ 과 2005년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용린 교수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신장²⁾ 문제를 주제로 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경험축정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II. 교육의 평등성 개념의 형성

1. 평등과 불평등의 역사

1) W.B.Brookover의 강연, “교육의 기회균등”은 신극범(역), 한국교육학회편, 「교육의논단」 (서울: 재동문화사, 1973), pp. 269-80에 수록되어 있음.

2) 한국교육학회,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신장”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평등(equality)이란 말은 국어사전을 통해 보면, ‘차별이 없는 동등함’ ‘차별없이 고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균등의 개념인 똑같음(sameness) 또는 유사(similarity)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Oxford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평등(equality)의 정의는 「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분, 위엄, 특권을 지닐 조건, ② 권력, 능력, 성취, 우수성에서 균등해질 조건, ③ 공정성, 공평성, 정당성, 균형」의 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는데 필요한 철학적 개념인 자유와 평등 가운데 인간의 평등에 대해 논의할 때 흔히, “사람은 모두 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말을 곧잘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평등은 사실을 서술하는 의미의 말이라기보다는 ‘격이 같음’ 혹은 ‘가치가 같음’등을 뜻하는 규범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³⁾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인간은 같다는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인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가치적 진술(도덕적 진술)로 이해되어야만 한다.⁴⁾ 그러면 평등이란 개념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우선 가장 고전적인 Aristoteles식의 정의에 의하면 평등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는 고대 귀족사회의 신분 질서에 입각한 것으로서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특권도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한 것들의 범주를 설정하는 준거와 한 범주 내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서양에서 평등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들고 있다.⁵⁾

Komisar와 Coombs는 평등의 개념을 동일성(sameness)과 적합성(fittingness), 혹은 공정성(fairness)으로 이해하고 있다.⁶⁾ 이들이 말하는 동일성의 모형에 의하면 평등은 “같으면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는 원리이다. 즉 이 모형에 의한 평등의 원칙은 “둘의 똑같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며, 똑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것도 평등에 어긋난다”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적합성 또는 공정성의 모형에서 평등을 ‘같은’의 의미보다는 ‘바른’ ‘공정한’ 혹은 ‘적합한’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공정성의 모형은 방법적 평등을 비교적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나 분배에 무관한 요인에 의한 공정한 분배 활동에서 부당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교정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교정적 평등이란 분배에 무관한 요인에 의한 공정한 분배 활동에서 부당한 손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먼저 분배와 무관한 요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의 무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사회에서 불평등이 발견되는 사실은 모든 사회구조에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각 사회에 따라

3)이돈희, 「교육철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83), p. 326.

4)김영식, “교육의 기회균등 : 문제와 전망” (한국교육학회, 창립20주년기념 제12회 학술연구발표논문집, 1973), p.22.

5)송광용, “교육격차의 문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제 18집, 1980, p.567.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안건상, ‘Comenius의 범교육론(Pampaedia)연구’(서울:을지사,1986), pp.21 이하에 잘 나타나 있다.

6)B. P Komisar and Jr. Coombs, The concept of Equality in Education, Joe Park(ed), Select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McMillian Co., 1968), pp.371 ~ 384.

서 불평등의 형태, 기능, 범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평등과 불평등에 가해지는 해서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평등과 불평등과의 관계는 평등은 이상(ideals)으로, 불평등은 실제(practice)로 표현될 수 있다.⁷⁾ 인간사회는 이상과 실제 사이에 많은 모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모순점들이 현대 산업사회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난 때는 없었다. 오늘날 모든 사회는 평등의 이상을 선언하고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 교육적 불평등은 현저하게 실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인 평등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제인 그 불평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불평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inequality)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어 왔고 그러한 불평등의 자연성(naturalness), 항존성(consistency), 불가피성(inevitability)에 관한 이론들이 이어져 왔다.

Aristoteles는 「Politics」에서 불평등에 관한 사상에 매우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는 출생, 체력, 부 등의 불평등의 영향에 관심을 갖고, 모든 사회에는 매우 부자인 사람과 매우 가난한 사람 중간을 차지하는 사람 등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질제와 중용은 최선의 길이라 생각된다. 라고 규정짓고 정부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평등의 영향을 중요시 하였다.

Machiavelli는 사회에서의 긴장과 갈등상태를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에서 고찰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선발되고 충원되는 가운데 통치자의 지위에 적합한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의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존재되는 한에서는 그것이 적당한 것이고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Rousseau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나는 인간 사회에서는 두 가지 불평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불평등으로 이것은 자연적 육체적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연령, 건강, 체력, 정신이나 지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다른 불평등은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규약이나 권위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의 특권이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명예롭고 더 강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을 지위 같은 것이 이러한 불평등의 표본이다”라고 말한다.

Rousseau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연령, 건강, 체력의 차이 및 정신이나 영혼의 차이에서 성립되는 자연적, 육체적 불평등과 일종의 약속에 의한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전자의 불평등은 그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그의 관심은 후자에 있었다.

불평등의 발상은 우리의 능력의 발달과 인간의 정신의 진보에 의해서 그 힘을 갖게 되며 다음으로 소유권과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인정되고 정당하게 되었다.⁸⁾고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기회평등의 이념은 Rousseau와 그 밖의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근대 시민 국가의 성립에 따라 국가적 필요에 의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선언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만들어졌으면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빼앗을 수 없는 천부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을 말하고 그 뒤 세계의 인권선언의 본보기가 된 1789년의 프랑스의 인권선언 제 1조에 「사람은 자유스러우며 권리에 있어서 생존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불평등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근본적으로 인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인

7)임선희, “근로계층의 학교교육기회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p.6.

8)J.J. Rousseau(1755), 「인간불평등 기원론」 최혁(역) (서울 : 집문당, 1974), p.133.

간의 ‘생태적 차이’와 ‘습득적 차이’에 의해서 혹은 이들 양자의 혼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계층이나 사회계층의 출현이 인간사이의 갈등과 긴장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⁹⁾

2. 교육의 평등성 개념의 형성

교육의 평등에 대한 개념의 형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한 시대에는 평등으로 간주되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불평등으로 배척되기도 한다.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를 때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평등으로 인정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평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Coleman은 교육의 평등 개념의 변천을 교육적 실제의 측면에서 4단계로 정리하였다.¹⁰⁾ 최초의 개념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취학기회 및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격차를 극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화 이전에 단계이므로 기술이 발달하고 직업이 분화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양적 기회의 평등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개념은 아동들이 각기 다른 직업적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그 능력과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종 계층 등을 학생들의 학교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며, 또한 직업적 장래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특정 아동들에게 특정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기회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 산업화 시대였다. 세번째 개념은 (1896-1954) 인종은 분리하지만 동등한 시설과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란 동일한 학교에의 취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평등한 제공에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상의 세단계의 변천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기회평등의 개념은 단지 기회와 출발점에 있어서만의 평등을 보장할 뿐 실제 학생들의 배경에서 오는 차이는 제거하지 못하였다. 즉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네 번째 개념이 형성되었는데, 학교교육의 질적인 효과에서의 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것은 어떤 배경, 인종, 거주지, 성별에 속하던 학교교육의 목표, 즉 학습효과에서의 동일한 수준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Husen의 보상적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Husen은 교육기회평등의 개념이 이념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적(Conservative)개념, 자유주의적(Liberal)개념, 보상적(redemptive)개념의 3단계 발전을 거쳐 왔다 하였다.¹¹⁾ 이것은 Coleman의 4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를 뺀 나머지 3단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김신일은 교육기회평등의 개념을 기회의 균평과 내용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전자를 허용적 평등과 보상적 평등으로 후자를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고 있다.¹²⁾

(1) 교육기회의 평등성

기회의 평등성의 개념은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근대사회의 개념이다. 그 전에는 평등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한 개념이었다. 신분은 사람의 질적 차이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분체도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자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아래 또는 법아래 평

9) 임선희, op. cit., p.11.

10) J. S. Coleman,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8(winter, 1968), p.9.

11) T. Husen, Social Influen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Paris : CERI, OECD, 1975) pp.13-40.

12)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pp.148-149.

등하다고 믿기 시작하였다.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¹³⁾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사람은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과 다른 차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신분, 종교, 성별,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오던 것을 없앴으로서 누구나 원하고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사람이 타고나는 능력은 각기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교육기회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별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인재군”(dool of ability) 또는 “재능 예비군”(reserve of talent) 개념이다.¹⁴⁾ 어느 사회마다 얼마만큼의 인재가 있는데 이 인재들을 발굴하여 알맞은 교육을 시킨 뒤에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이다. 인재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나치게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인재의 활용을 놓치는 일도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재군 개념은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우는데 자주 이용되었다. 더욱이 각 연령집단 내의 인재군의 비율을 사회계층별로 계산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은 하층계급보다 상층계급의 머리가 더 좋다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허용적 평등은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의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여겨 제 2차 대전 이후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영국의 「1944년 교육법」(The 1944 Education Act)은 이 면에서 대표적인 것이 되었다.¹⁵⁾ 그 내용을 보면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중등교육의 복선제가 지니고 있는 불균등 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힘들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당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취학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거의 모든면이 평등해질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것과 분배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이해는 다음에서 다루는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평등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된다.

(2) 교육결과의 평등성

먼저 과정의 평등에 대해서 교육기회평등 개념에 큰 공헌을 한 Coleman은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아동들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다같이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만으로는 평등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13) Ibid, p. 149.

14) Ibid, p. 150.

15) Ibid, p. 151

하면 학교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나와 상급학교 진학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상급학교 교육의 기본 분배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평등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1964년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교육처(office of Education)에서 Johns Hopkins 대학의 Coleman에게 의뢰하여 개인에 대한 교육기회 등의 결여 여부를 조사한 방대한 연구를 추진시킨바 있는데, Coleman이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Coleman Report¹⁶⁾ (보고서의 정식 제목은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는 한때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 예를 들어 교과서, 도서관,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사의 자질 등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학교의 교육조건의 차이는 학생의 교육조건들은 성적차이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이를 없애는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에 들어올 때 학생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환경에 의하여 기본적인 능력과 적성이 길들어졌고 학교교육의 과정에도 계속하여 가정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는 속수무책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교육조건이 나쁜 학교를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조건의 평등화는 그것이 미치는 성적차이에의 영향과 관계없이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누구나 같은 교육조건 아래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기회의 평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결과의 평등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전환은 1960년 Coleman에 의해 수행된 국가적 규모의 연구에서 추적해 볼 수 있다. Coleman은 「교육기회평등의 개념은 학교의 질에 기초한 즉 학교의 투입요건에 입각한 전통적 견해로부터 학교의 실제적 결과 즉, 학생의 성취도에 기초한 개념으로 옮겨져 왔다.」고 말한다. 이 말에 따르면 학교의 투입(input)요건이 평등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산출(out put)결과가 평등하다면 교육기회 평등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 조건이 평등화 되어도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자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 결과가 평등하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교육평등의 문제가 여기에 이르면 더욱 더 복잡해진다.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을 같은 학습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똑같이 다루어서는 불가능하다.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일종의 역차별이다.¹⁷⁾ 이제까지는 약자가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의 평등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평등의 개념에 일대 전환을 이루었던 Coleman은 교육의 기회평등의

16)1964년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처(office of Education)의 의뢰에 따라 Johns Hopkins 대학교의 J.S.Coleman은 미국민권법(Civil Right Act) 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내 약 4,000여개의 학교에서 약67만 명의 학생을 상대로 미국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이론과 조사에 크게 공헌 하였다.

17)김신일, op. cit., pp. 154-155.

개념에 대해 다시금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는 기회평등의 개념은 투입(input)도 산출(output)도 아니라고 한다.¹⁸⁾ 환경이 불균등한 집단에서는 성취의 평등이 불가능함으로 산출의 평등이라 할 수 없으며 어떤 아동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되는 투입을 똑같이 하는 것을 투입의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입도 산출도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Coleman은 교육기회 평등개념은 “평등”보다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소극적 기회의 평등관을 견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그 자체가 교육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기회평등에 의한 교육결과와 교육여건의 평등이라는 문제이다. 언뜻 생각하면 교육결과의 평등이지만 Coleman등의 연구에서 주장되듯이 학업성취의 결과가 같다는 확실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보다는 오히려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즉, 개성의 신장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평등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여건의 평등이라는 개념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여건이 주어져야 한다기 보다는 각 개인의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III. 교육의 평등성 의미와 한계

교육기회의 평등이 교육계의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교육이 현대사회와 갖는 중요한 관련성 때문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교육은 개인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을 또한 개인의 행복스러운 생활과 장래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개인생활 및 사회 발전과의 관련성은 교육의 기회평등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¹⁹⁾

한국교육학회 20주년 기념 강연회의 에서의 Brookover 의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강연, 과 2005년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용린 교수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신장 문제를 주제로 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경험측정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관련해 고찰해야 할 것으로 차경수 교수는 다음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²⁰⁾ 첫째는 교육의 기회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에 관한 정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고, 현재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장래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의 기회평등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교육의 기회평등과 정책과의 문제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현재의 사회적 체제가 질서와는 어떤

18) J.S, Coleman, "What is meant by a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Oxford Review of Education , No.1,p.27,

19) 차경수,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pp. 73-74.

20) 차경수, op. cit., p. 74

관계에 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교육의 기회평등과 관련해서 사회적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논의되기도 한다. 교육의 기회평등의 개념은 각 사회의 본질과 학교 교육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기회평등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의 변천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 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하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이후 헌법 제 27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의무교육 기간에 교육 받을 의무를 부과했으며, 1949년 12월에는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설치한다는 교육기회 평등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기회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루어진 시기는 18세기 후반부터였으며 본격적인 거론은 20세기 후 초등교육 단계의 무상 의무교육제도의 성립에서부터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프랑스 교육 근대화의 과정에도 일대 변화가 파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시민에게는 공통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빼 놓을 수 없는 교육의 부분에 관해서는 무상의 공교육을 설립하고 조직한다.”고 한 달레랑·뻬지고르(Charles Maurice de Talleyrand - Perigord)의 「공교육 법안」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²¹⁾

영국의 경우 1918년 「초등 교육법(Fisher Art)을 제정하여 5-11세까지는 완전무상 의무교육으로 개방하였고 「1944년의 교육법」(Buttler Act)이 제정된 후 중등교육도 무상 교육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호레이스 만(Horace Mann)과 버나드(H Baynard)등의 교육 개혁가들의 노력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의무교육제도가 수립되었는데 “공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Mann은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제 조건을 평균화시키는 최상의 사회적 조치이다.²²⁾ 라고 하였다.

Husen은 서구 사회에서의 교육적 평등이 변천하는 과정을 그 개념상의 발전에서 세 가지 주요한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상이한 사회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보수주의적 개념(the Conservative), 진보주의적 개념(the liberal) 그리고 보상적 개념(the redemptive)등으로 발전되었다. 교육기회에 대한 보수주의적 개념은 신으로부터 다양한 재능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보수주의적 개념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평등의 의미는 실제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과의 문제로 귀결된다. 진보주의적 개념은 기회의 획득에서 가능한 모든 귀속적 제약 조건들을 폐기하여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시하는 보상적 기회평등의 개념은 새로운 기회평등의 개념으로서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결과의 평등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회평등을 적극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성취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접근하여 묘사하기는 쉽다. 대개의 경우에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고 접근하기 쉽게 취급하였었다.

Coleman은 「교육기회의 평등」(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에서 교육기회평

21) 손인수·정재철(공저), 「서양교육사」 (서울 : 교육출판사, 1973), p. 167

22) Ibid, p. 261.

등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한 개념을 제시하였고, 「교육기회평등의 개념」(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1971)에서 교육의 기회평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²³⁾

첫째,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일이다. 둘째,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적인 교육과정(Common Curriculum)을 제공하는 일이다. 여기서의 공통적인 교육과정이란 교육기회평등의 실현방법으로 가정의 문화실조에서 생기는 결손들을 좁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다양한 환경들로부터 온 아동들에게 똑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제공한다. 1896년 대법원의 “Separate but Equal”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1954년에는 위헌으로 판결되므로 같은 시설과 교사가 있더라도 인종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으면 기회평등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넷째, 지역의 세금은 학교를 위한 지원의 근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내의 평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상과 같이 Coleman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회평등의 의미는 처음에는 교육기회의 성취에 대한 동일성(Saneness)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점점 교육의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평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의 기회평등의 개념을 학교 교육의 투입(input)으로 생각하던 개념에서 산출(output)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지고 또한 “양적평등”에서 “질적평등”으로 의미의 관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적 경쟁이란 처음부터 공정한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결국은 세습적 특권에 의해서 제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은 출발점(Starting line)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점에서의 제도적인 기회평등은 교육결과가 좋은 나쁜 간에 그 책임을 개인의 성취 정도로 간주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능성의 전제가 없는 시작에서의 기회의 개방은 기회평등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정신을 교육의 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⁴⁾

①인간 능력의 개인차 및 가정환경의 격차. ②교육현실에서의 학교시설, 교구, 교사의 자질, 학교분위기의 학교간의 지역간의 격차 등이다.

또한 교육기회의 평등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보상교육 혹은 보충교육(Compensatory mechanism)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원흉은 학교의 사회 정치적 풍토나 학교문화 그 자체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불평등의 현상은 비단 학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²⁵⁾

Rawls는 정의의 두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의의 두 원칙은 교육의 기회평등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²⁶⁾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①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②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회평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

23) J.S. Coleman,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pp. 233-40.

24) 한정신, “한국 청소년의 교육격차 연구”(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0), pp. 14-15

25) 한준상, “교육의 사회학의 연구동향”, 한준상(편), 「새로운 교육학」(서울:한길사, 1981), p.93.

26) J.Rawls, 「사회정의론」, 황경식(역) (서울 : 서광사, 1981), P.89.

다.²⁷⁾

교육의 기회평등은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제도상으로는 그것을 보장하는 조건을 마련하기도 매우 복잡하다. 평등(Equality)과 마찬가지로 기회란 용어도 불확실한 개념이어서 “교육의 기회평등”은 그 불확실성이 배가되고 있으며 그 의미의 한계점도 조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 기회평등 원칙은 적어도 제도적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므로 그것의 개념적 특징과 규범적 정신 및 기술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의 기회평등 개념은 물론 상당히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며 당위적인 면에서 주장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교육의 기회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조금의 한계점이 보이지만 그 이상을 향해 열심히 추구해나갈 때 그 이상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교육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과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교육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갈등

교육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혹은 보편성은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수월성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하며 교육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수월성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 평등(Equality)과 질(quality)간의 갈등

교육의 양적 팽창은 반드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것은 재정적, 인적, 시설적인 여러 조건이 급증하는 교육인구에 따르지 못하는데서 기인되는 형상이다.

교육의 질과 양의 논쟁에서 Douglas Bush는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아니다」(Education for all is none)라고 극도의 입장을 견지 하였다. 또한 철저한 보수주의자들도 기회가 확대되면 「다즉저질」多即低質 (more means worse)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Gardner 은 질적교육과 대중교육이 상호배타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한다.²⁸⁾ 그는 구별이 없을 때 결과는 모든 사람은 너무 평범해진다는 것이다. 즉 표준의 저하, 취미의 저하, 길만 그럴듯한 교육, 저속한 예술, 시시한 정치를 결과한다고 한다. 그는 양질의 교육과 대중교육은 서로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각 개인에게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대학에 가야한다는 뜻과는 구분된다. 즉 다양하게 자기능력에 맞추어서 대학과 대학이외의 기를 진출하여야 한다.

27) 임선희, op. cit., p. 44.

28) J. Gardner, Excellence(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 1961), p.76,

Gardner는 사회는 각 개인이 그들의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그가 지니고 있는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해야만 한다고 한다.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천성적이든 환경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든 간에 풍부한 상상력과 건설적으로 이런 차이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⁹⁾ 그는 평등사상을 각 개인이 자신의 천부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수성이 만족될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Gardner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란 사람을 지능이나 인생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여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에서의 다원적인 접근을 하여 각자의 생활 및 업적을 존중하는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자기의 우수성을 추구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그는 다양성 속에서 나뉠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최선의 것을 즉 우수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기회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기회평등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학교기능의 자율성이다.

둘째, 지적 우수성이 목적자체가 되는 선발된 교육기관도 일부는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투자의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과대규모 학교를 지양하고 부족하고 노쇠화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섯째, 모든 학교교육기능기관은 최소한의 교육수준 이상의 질적교육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평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개방화와 질적 우수성(excellence)은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교육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수하다는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둘째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은 반드시 생기는 갈등이 모순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교육의 질 간에는 반드시 상호배타적이고 갈등의 연속이 아니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평등주의(Equality)과 능력주의(Meritocracy)³⁰⁾ 간의 갈등

현대사회는 Michael Young이 쓴 「능력주의의 대두」³¹⁾라는 책에 묘사된 근본적인 문제들로 휩싸여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발전은 인간재능의 최적 수준까지 이용함으로써 결정된다고 생각되며 교육을 받은 능력은 타고난 신분과 부의 민주적인 대응품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이거나 사회주의 경제이거나 상관없이 사회는 점진적으로 능력사회로 나아가며 후기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배우는 사회라고 불리워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등주의와 능력주의(Meritocracy)와의 문제는 심각한 갈등을

29) Ibid, p.58,

30) Meritocracy라는 용어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Michael Young이 제창한 말로서 지능과 노력으로 정의되는 개인의 업적이 사회적 배분의 지배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우리말의 번역은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보면 업적주의, 실력주의, 능력주의 등 많으나 여기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능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Equality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므로 능력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31) Michael Young,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2033 (London:Random House, Inc, 1959), 이주현, op.cit., p.48에서 재인용

야기시키고 있다.

기회평등의 시작은 개인은 사회의 유일한 단위이고 사회적 조정의 목적은 개개인이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재능과 야망에 따라 평등하게 개방된 공정한 경쟁의 어떠한 다른기준에 따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세기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세계대전 후에 거의 모든 나라는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능 찾기에 관심을 두었다. 재능 있는 청소년은 어렸을 때 선별되어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며 사회에 있어서 상하관계를 결정하는 원칙은 마침내 능력주의 원칙이 되었다. 이 원칙은 사회의 각 분야에 침투해 들어가고 마침내는 연공서열의 원칙마저 무용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능력있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적재이면 당장 최고 수준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전문적 기술은 효과적인 권력의 조건이 되었고 고등 교육은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수단이 되 후기 산업사회는 능력주의의 논리적 연장(extension)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출생이나 근본적인 인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판단되고 보상 받는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논리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의 본질은 사람의 평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취와 지능과의 가정된 관계성과 지능과 지능지수 척도에서의 측정치와의 가정된 관련성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지능을 결정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게 된다.

Daniel Bell은 기술의 우월성, 자본주의적 통제로 공적, 과적 부분의 종석관계, 직업적, 과학적 엘리트의 성장하는 영향력을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보고, 능력주의와 공정의 원리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우수한 사람이 일과 노력을 통하여 최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기회를 없애지 않고서 사회정책의 공리로서 불이익자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업적 성취의 원리와 보편주의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초이고 사회를 신장시킨다고 보면서 중요한 것을 순수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²⁾

능력주의의 이론은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더 높은 기술있는 사람의 비율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모집되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만약 재능 있는 청소년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정책이 재능이 없는 청소년 속에 적의를 풀게 할 만한 것이라면 반드시 역회전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회의 대부분은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 및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거의 점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능력주의(perfect meritocracy)는 도덕적으로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단지 사회적 특권과 학문의 성과에 기초를 둔 「불완전한 능력주의」만이 사회에서 가능하다.

평등과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정한 가치 있는 부문에서 높은 성취를 얻는 사람은 그 부문에서 그들이 우수하여 높은 것이지만 인간 존재로서도 더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즉 능력에 따른 업적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성취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상에서 평등과 능력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능력에 의해 달성한 성취라면 불균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김영식은 능력만을 너무 중시한다면 능력에 의한 새로운 차별을 용인하게 된다³³⁾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32) 박경원,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4), pp.75-76.

33) 김영식의, 「교육제도의 이념과 현상」(서울 : 교육과학사, 1982), pp.90-91

능력주의는 교육은 팽창했으나 아이에게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는 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 것과 높은 지위직업을 얻을 수 있는 졸업장의 취득에도 사회적 층간의 격차가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과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과 IQ 측정이 학교에서의 성공여부에 대한 예언에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졸업 후 직업적 지위와 그에 따른 수입을 아는 데는 확실한 지표가 되 수 없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V. 교육의 평등성에의 접근 방안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과제로써 교육이념·철학적 측면, 교육행정·재정적 측면,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이념·철학적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 주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이 잘 조화되어야 하고 학력이나 기능 위주의 교육관에서 탈피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비 부담을 축소해야 하고 나아가 교육의 정상화와 학교간의 격차를 중이기 위한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³⁴⁾

둘째로, 교육행정·재정적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평등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족한 교육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기회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냐는 과제인 것이다. 교육기회평등과 교육재정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진학의 기회와 교육량과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³⁵⁾ 그것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교육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진학에 보다 유리한 학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기회평등과 교육재정의 두 번째 문제는 교육비 지출과 지역 격차의 문제이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농촌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교육의 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자세의 확립, 학생지도의 공정성, 수업의 질을 평등화하기 위한 노력, 학습 집단의 융통성 있는 구성과 운영, 학업 특수아동에 대한 지도, 특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에 따른 진로 및 진학지도, 교사의 학년조직 배치의 합리화 등 학교 경영의 조직과 관리의 측면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학교현장 교사의 태도 이념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이 제기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육제도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세력에 종속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이 극복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적 기능에 대한 이념적 확립의 부재와 사회 정치적 영향이 교육현장에서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학생의 주거지역 등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화 결손과 같은 교육적 불평등을 극소화 시켜야 한다.

34) 박봉목, “교육격차의 현실과 과제-교육이념: 철학적 측면에서”, 한국교육학회 편, 「교육학연구」(1985.10), p.10.

35) 배종근, “교육과 경영”, 「현대교육행정론」, 교육행정학회(편), (대구:형성출판사, 1982), pp.52-54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 격차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역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논의에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으로서 차경수의 “한국에 있어서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³⁶⁾

첫째는 학생이 학교에 지리적으로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접근모형(access model)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의 봉사인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교직원, 교육시설 등의 평등화를 의미한다. 학교교육의 효과는 학교 구성원의 상호기대와 평가 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간, 공사립간, 남녀학교간, 인문계·실업계 학교간에 있어서 학교가 학생에게 베푸는 이와 같은 봉사기능에서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의 봉사기능에서의 격차를 극소화해야 한다.

둘째는 학생들의 성적을 측정하는 성적모형(achievement model)이다. 이것을 학생들의 성적이 순수한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학생이 졸업한 후의 사회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동일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동일한 인생의 기회를 갖는가를 측정하는 결과모형(effect model)이다. 이것은 또 같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여도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졸업하여도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졸업 후 받은 수입이 적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있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적 기회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있어 교육의 평등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필요하고 교육평등성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의 지역간 균형배치 및 교육투자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과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지방학생들도 자기 거주 지역에 진학할 수 있게 되며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서울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역간의 격차도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 농촌간 교육투자의 균형을 도모하여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시설의 개선을 비롯하여 교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교육의 평등화 방안으로 교육비 부담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교육비 부담 방식은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채 누구나 똑같이 교육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비 부담 방식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더욱 불균등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원칙(positive difference principle)을 두어 교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직을 위한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들로 하여금 그 전문적 책임을 다하여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대우가 필요하다. 신분보장 및 복지후생이 확충 강화되어야만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다. 제도적인 보장이 뒤따라야함은 물론 교사를 등한시 내지 경시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36) 차경수,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pp.80-81

자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거리가 먼 여러 가지 부담만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회풍도가 시정 되어야 한다.

넷째, 능력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중등교육의 평준화로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 수업체제가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기회평등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제도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유통성을 보완하고 학교 외의 여러 교육기관의 확충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교육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휴일에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입학고사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과 사관학교 등 특수학교의 입학선발고사가 일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여건에서의 진학 기회 제공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VI. 마치는 글

교육의 평등성이 개념의 단계를 지나 교육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야기되는 문제들로서 평등은 질을 수반하는가? 또한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는가? 사회, 국가는 능력주의에 의해 발전되는지 아니면 평등에 의해 발전되는지? 의 문제들을 평등과 질간의 갈등과 평등주의와 능력주의간의 갈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또한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접근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 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신중하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며 아울러 미비점이 생기면 이를 보완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실천하는 정책에 반영시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교육의 평등성의 문제는 양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 지역간, 남녀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현장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소방안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 목표이며 대 전제인 교육의 기회평등은 비단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내실을 기함은 물론 어려운 여건과 장애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최소한 교육량을 공급과 교육 수준상의 전반적인 격차해소와 경제적인 제약조건 완화 등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형식적인 노력만을 기울인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해 나가면 불균형과 격차는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교육의 평등성 연구에서의 과제는 교육 평등의 철학과 개념에서 더 나아가 교육 기회평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의의와 시사를 찾아야하며 아울러 그 해소를 위한 접근 방안에 대한 광범한 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개인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를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다루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병성, “학교교육 균형발전의 문제와 접근.” 「교육개발」 제 3권 6호, 1981.
- 김영식, “교육의 기회균등 : 문제와 전망”. (한국교육학회, 창립20주년기념 제12회 학술 연구발표논문집, 1973.
- 박봉목, “교육격차의 현실과 과제-교육이념 : 철학적 측면에서” 한국교육학회편, 「교육학 연구」.제13권, 1975.
- 손인수·정재철. 「서양교육사」. 서울 : 교육출판사, 1983.
- 송광용, “교육격차의 문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제 18집, 1980.
-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83.
- 이원호, “한국교육사상에서 본 교육의 보급”. 한국교육학회, 창립20주년기념 제12회 학술 연구 발표논문집, 1973.
- 이주현, “교육기회균등 사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
- 임선희, “근로계층의 학교교육 기회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893.
- 차경수,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한국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제12회 학술연구발표논문집, 1973.
- 차하순, 「형평의 연구」. 서울 : 일조각, 198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발전의 전망과 자세”.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78.
- 한국교육학회, “교육의 기회균등:문제와 전망”. 한국교육학회, 창립20주년 기념 제12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1973.
- 한국교육학회,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신장”,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2005.
- 한준상, “교육의 사회학의 연구동향”, 한준상(편), 「새로운 교육학」. 서울: 한길사,1981.
- 한정신, “한국 청소년의 교육격차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0.
- Coleman, J.S. et al. Report 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EEO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or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6.
- Coleman, J.S.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8. 1968.
- Gardner, J. Excellenc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 1961.
- Gordon, E. W. Toward defining of education opportunity, On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New york :AMS press Inc, 1974.
- Husen, T. Social Influences on Educational Opportunity, Studies in Social and Economic Process. Haeth Lexington Books, 1971.
- Husen, T. Second thoughts on equality in Education, An IIEP seminar planning education for redacing inequalities. Paris : The UNESCO press, 1981.
- Jencks, C. "Inequality in Retrospect", in HER, vol.43-1, 1973.
- Persell, C. H. Education and Inequali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7.
- Rawls, J. 「사회정의론」, 황경식(역). 서울 : 서광사, 1981.
- Tawney, R. H. Eequality. New York : Barnes & Noble, 1965.
- Tyler, W. The Sociology of Educational Opportunity. London: Methuen, 1997.